

원화 환율 1,000-1,000 시대의 명암

2008. 3. 17.

I. 원화 환율 급등 배경과 전망

1. 원화 환율 급등 추이와 배경
2. 원화 환율의 향후 전망

II. 원화 환율 1,000-1,000 시대의 영향

1. 거시 경제적 영향
2. 산업별 영향

III. 대응 전략

□ 원화 환율 1,000-1,000 시대의 명암

원화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1,000원/달러, 1,000원/100엔인 '1,000-1,000'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2008년 2월 28일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3월 15일 1,000원을 돌파하였으며, 원/엔 환율 역시 지난 2월 22일 100엔당 882.2원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3월 15일에는 1,000원을 상회하였다.

최근의 원화 환율 절하는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과거 3저 시대(저금리에 의한 세계 경기 호조, 달러 강세 저유가)의 환율 절하 효과와는 달리 오히려 부작용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 첫째, 수출 증가에 의한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 평가 절하는 수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출 증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추세이고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수입 중간재 및 자본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증대 효과가 상쇄되어 무역수지 개선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물가 상승에 의한 내수 부진은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높다.** 원화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입 물가가 급등하여 국내 물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국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자재가 상승은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게 된다. **셋째, 원화 환율 상승에 따르는 금융 손실 증대로 국내 금융 시장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원화환율 상승은 외화 채무를 지고 있는 기관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증대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을 유도하여 국내 주가 하락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은 원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 또 다시 외국인 투자자의 탈출을 부추겨 국내 증시는 물론 금융 시장 전반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시킬 수 있다. **결국, 원화 환율의 급등은 수출 증대 효과보다 국내 경기의 위축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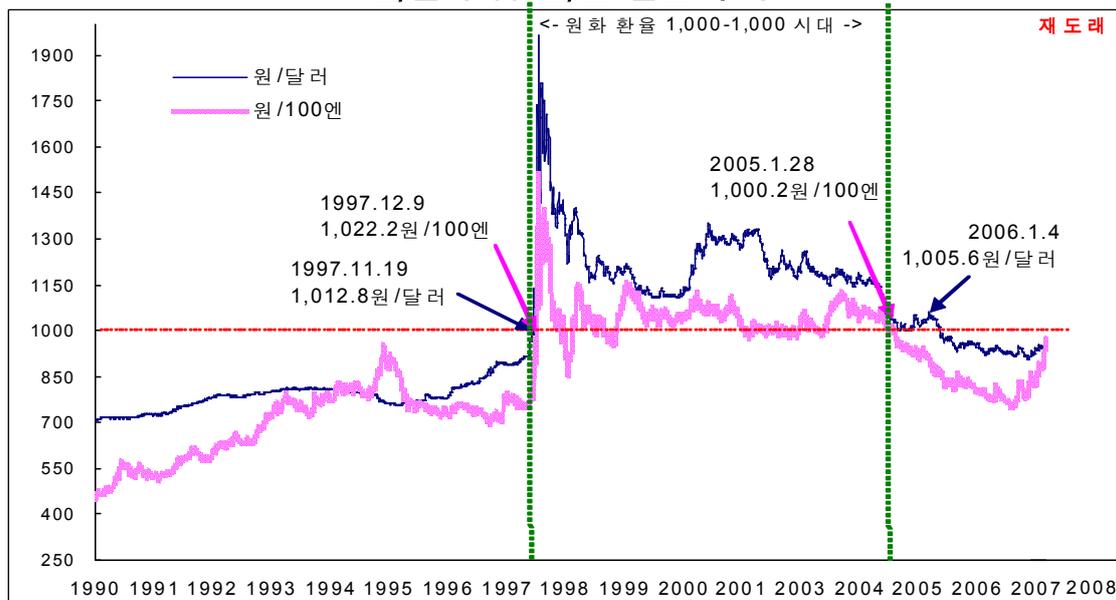
따라서 정부는 환율 상승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의 전환을 전제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원화 환율 상승 기대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 원화 환율의 급등락을 방지하고 수출 증가와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정 환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급등 기대 심리를 해소하여 국내 달러 보유 주체들의 달러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원저 시대를 서비스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선 국내 관광 서비스 향상과 홍보 증대로 외국인과 국내 소비자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 의료, 법률 등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개인 자산 유동화 촉진, 고용 연장 지원, 가계 부채 증가 억제 등을 통해 국내 소비 심리를 진작시켜야 한다. 또, 규제 완화의 신속 추진, 신성장 산업 분야 투자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아울러 국내 건설 경기 진작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내수 경기 둔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보다 신속적이고 선제적인 금융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I. 원화 환율 급등 배경과 전망

1. 원화 환율 급등 추이와 배경

- (1,000-1,000 시대로의 회귀) 원/엔 및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이른바 1,000-1,000 시대(1,000원/달러, 1,000원/100엔)로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짐
- 2002년을 제외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은 1,000-1,000 시대였으며, 최근 원화 약세는 이 시기로의 회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1997년 11월 17일 달러당 1,008.6원 이후 2006년 1월 3일 1,005.4원까지 1,000원대를 기록했으며, 이후 하향 기조를 유지하다 급상승함
 - 2008년 2월 28일(936.5원)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3월 14일 약 6.5% 상승한 997.3원을 기록함
 - 특히 2008년 3월 14일 장중 달러당 1,014.75원까지 상승함
- 원/엔 환율 역시 1997년 12월 9일 100엔당 1,022.2원 이후 2005년 1월 28일 1,000.2원까지 1,000원대를 기록했으며, 이후 하향 기조를 유지하다 최근 급상승함
 - 2008년 2월 22일 100엔당 882.2원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원/엔 환율은 3월 14일 약 10.5% 상승한 974.8원을 기록함

<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급등 배경) 원화 환율이 급등하게 된 것은 달러화에 대해 엔화가 초강세를 띄는 반면, 원화는 가파른 약세 기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임

- 특히 달러 약세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상승한데 반해,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원/엔 환율이 급상승함

$$\text{원/엔 환율} = \text{원화가치} / \text{엔화가치} = \frac{\text{원화가치} / \text{달러가치}}{\text{엔화가치} / \text{달러가치}}$$

↑
↑
↓

○ (엔화 강세 배경) 미국 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 이후 엔화는 글로벌 달러에 대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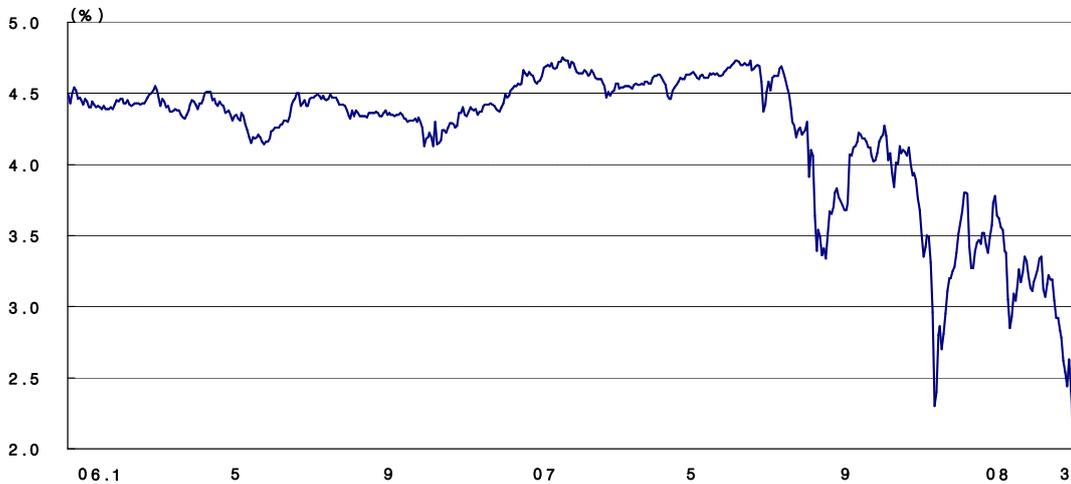
- 엔/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 연방은행의 유동성 공급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3월 18일에 예정된 미 연준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현행 3.0%에서 추가적으로 0.75%p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난 11일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일본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어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청산되고 있는 점도 엔/달러 환율의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더하여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있는 점도 엔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원화 약세 원인)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감소하였기 때문임

-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신용경색으로 달러화 차입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본국에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 및 비거주자의 역외선물환 순매수, 무역수지의 3개월 연속 적자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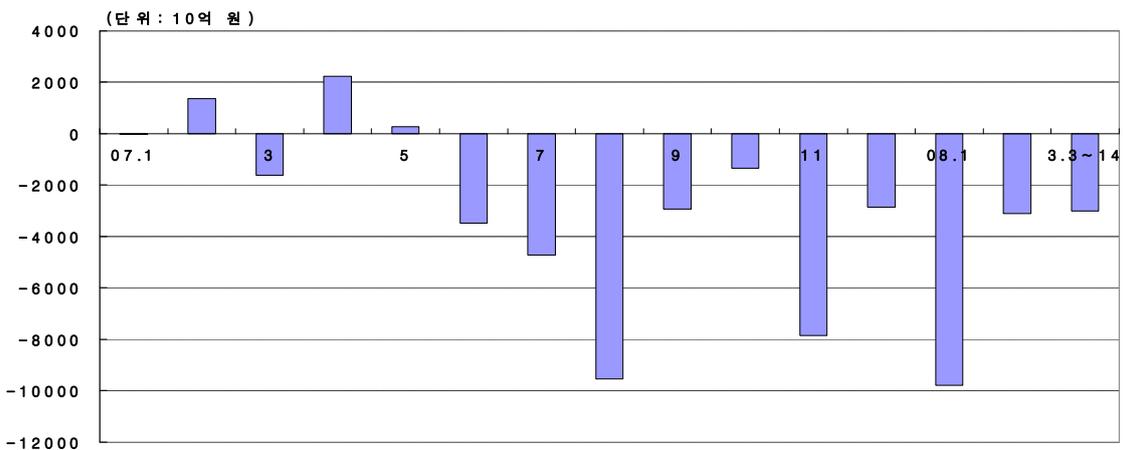
- 달러화 차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통화스왑 시장에서 통화스왑(1년물)금리 (원화고정금리)가 기존의 최저치인 2.30%(‘07.11.22.)보다 낮은 2.17%까지 하락
- 또한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은 2007년 6월부터 10월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며 3월중(3~14일)에만 3조원 순매도하여 2월의 3.1조원 수준에 이름
-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이 악화되면서 역외거래자들이 달러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역외선물환¹⁾ 매수도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더욱이 원유, 곡물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국내 무역 수지가 2007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면서 시장참가자 사이에 원/달러 환율 상승 기대감 형성의 원인을 제공함

< 최근 통화스왑(원화고정(1년물))금리 추이 >



자료: Fnguide, 산업은행 제공.

< 유가증권시장의 월별 외국인 주식투자자 순매도 규모 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

1) 비거주자의 역외선물환 거래 규모는 국내외환시장에서의 현물환 거래 규모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원화 환율의 향후 전망

○ 원화 환율의 1,000-1,000시대가 향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수급 요인상 엔/달러 강세 기조와 원/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될 전망

○ (엔/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은 당분간 하락세가 유지될 전망

- **엔화 강세 당분간 지속 전망** : 미국 주택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어 엔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당장 3월 18일로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행 3%인 정책금리를 추가적으로 최소한 0.5%p 이상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으로 엔화의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이 큼

· 한편,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달러당 엔화는 두 자리 수대에 진입하여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과거의 사례를 보면, 1994년 6월 엔/달러 환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1995년 4월에는 81엔대까지 하락하였고, 95년 10월부터 세 자릿수를 회복

- **일본측 예상** : 사카키바라 전재무장관은 엔화 환율이 추가적으로 80엔 대까지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그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엔화가 90엔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 **해외 투자은행 전망** : 해외 투자은행들의 전망에 따르면 엔화의 강세 기조는 하반기 들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하반기 들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음

·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어 이들 기관들의 추가적인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주요 해외투자은행들¹⁾의 일본 엔화 전망 >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평균	102.48	104.45	105.88	105.85
최고	110.00	113.00	115.00	115.00
최저	95.00	100.00	100.00	95.00

자료: 국제금융센터.

주: 1) 16개 해외 주요투자은행의 2008년 2월 8일~ 3월 10일 전망치임.

○ (원/달러 환율 전망) 원/달러 가치는 당분간 하락세가 유지될 전망

- 달러화 수급 불일치 지속 : 공급측면에서 달러화 자금의 국내 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상수지 적자세 지속, 3~4월 외국인 주식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송금 수요 증가, 미국 금융 불안에 의한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순매도 지속 등에 따른 달러화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신용경색 지속에 따른 달러화 차입 어려움 : 대외적으로 미 연방은행이 3월 18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달러화 자금의 국내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경상수지 적자세 지속 전망 :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는 한 적어도 2008년중 7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어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외국인 주식순매도 지속 : 한편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대내외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금리재정거래 차익을 위한 외국인 채권투자자의 유입의 확대가 예상되지만,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도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주식 배당금 송금 수요 : 국내 12월 결산기업의 외국인 주주들이 받는 배당금 송금이 통상 3~4월에 집중되어 있어 당분간 원화 환율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 지난 몇 년간 외국인 배당금 송금 수요로 인해 3월과 4월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음
 - 원화 헤지 수요 감소 : 지난 2년간 원/달러 환율 하락의 촉매제가 되었던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매도세는 95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미국의 신용경색이 일단락되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달러화 공급 여건이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원/달러 환율의 약세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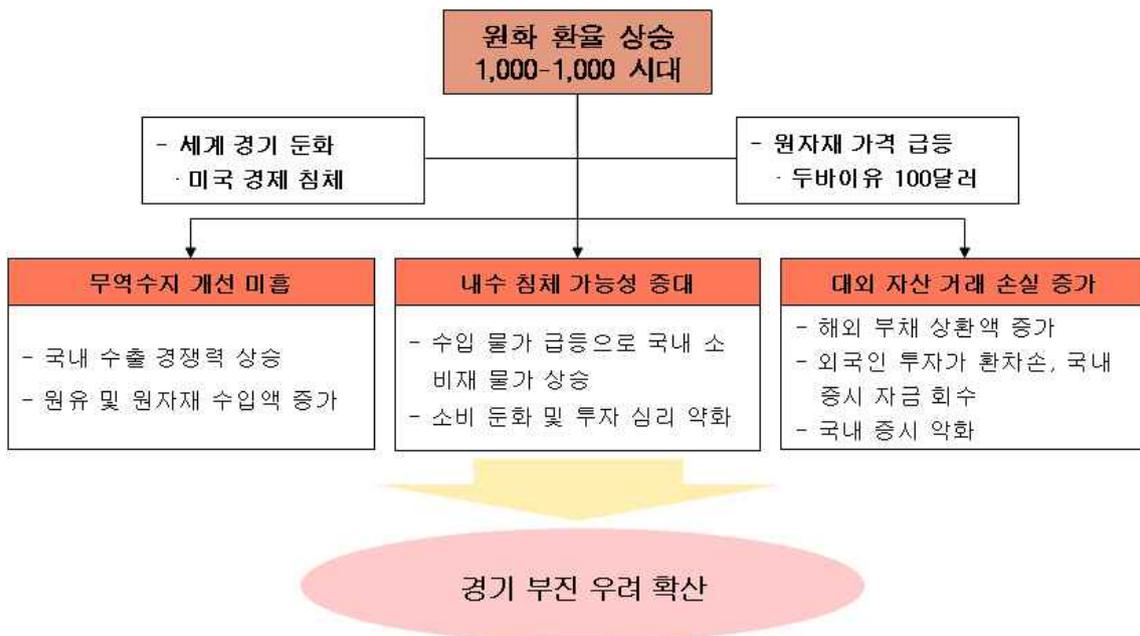
II. 원화 환율 1,000-1,000 시대의 영향

1. 거시 경제적 영향

○ (금융 손실 증가와 투자 위축을 통한 경기 위축 가능성) 원화 환율의 상승은 국내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을 증가시킬 것이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금융 손실 증가와 투자 위축을 통해 국내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큼

- 이전 3저 시대(세계 경기 호황, 달러 강세, 저유가)와 달리 세계 경기 둔화, 원자재가 급등 속 환율 절하로 환율 절하 효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부작용의 확산 가능성이 높음

< 원화 환율 상승의 경제 파급 효과 >



- 수출 증가에 의한 무역 수지 개선 효과 미미 : 원화 평가 절하는 수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출 증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나,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수입 중간재 및 자본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 증대 효과를 상쇄해 무역수지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

- **물가 상승에 의한 내수 부진** : 원화 환율이 상승할 경우, 국내 수입품에 대한 원화표시가격이 인상되어 국내 물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국내 소비 위축 원인으로 이어짐
 - **국내 물가 상승** : 원엔 환율 상승에 의한 수출 증가는 대일 수입 증가를 유발할 뿐 아니라 원화 표시 대일 수입 상품 가격 상승으로 국내 물가를 상승시킬 것임
 - 한국은행(2004)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산업연관표 분석 결과 원엔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약 0.22%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 위축** : 국내 물가 상승은 개인 소비를 억제할 뿐 아니라 기업 채산성을 악화시킴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금융 손실 증대** : 한편 원화 환율 상승은 외화 채무를 지고 있는 기관들의 부채상환 부담을 증대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탈출을 유도하여 국내 주가 하락 현상을 심화시킴
 - **증가하고 있는 외화 대출 규모** :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대출 규모는 2004년 12월 말 20.9조 원에서 지속 상승 2007년 9월 말에는 37조 원까지 확대됨

<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대출 규모 추이 >

(단위 : 10억 원)

구 분	'01.12말	'02.12말	'03.12말	'04.12말	'05.12말	'06.12말	'07.3말	'07.6말	'07.9말
외화 대출	20,701	21,128	22,447	20,913	23,413	32,741	34,932	36,109	37,017

자료 : 금융감독원.

- **외국인 투자자 이탈** : 원화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손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임
- **악순환 고리 형성 우려** : 미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에 따르는 원화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환차손 회피를 위한 국내 증시 이탈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는 다시 국내 증시 악화와 원화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국내 경기 위축 가능성 고조** : 원화 환율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과 소비 둔화, 기업들의 금융 손실 증가는 국내 투자 위축 및 금융 시장 혼란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내 경기의 위축 가능성을 고조시킬 것임

2. 산업별 영향

○ (긍정적 부문) 자동차, 컴퓨터, 가전, 석유화학 부문은 원화 환율 상승에 따르는 수출 경쟁력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자동차 : 특히 원/엔 환율 상승은 대일 수출 경합이 치열한 자동차 부문의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일본차의 국내 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컴퓨터 : 원화 환율 상승으로 부품·소재 수입 단가 상승 우려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 가전 : 한일 간 디지털기기 중심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원화 환율 상승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석유화학 : 한국은 일부 범용제품에서 일본 등과 수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원화 환율 상승으로 범용제품의 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중립적 부문) 섬유, 조선, 반도체, 통신기기, 철강 부문은 원화 환율 상승에 의한 수출 경쟁력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것임

- 섬유 : 중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이 심한 부문으로 원화 환율 상승에 의한 對개발도상국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고급 섬유 소재의 수입 단가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조선 : 원화 환율 상승은 신규 수주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미 3~4년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주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임
- 반도체 : 가격 경쟁 우위로 수출 증가가 기대되기는 하나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강화되고 있고, 반도체 시장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단기 효과는 미미할 것임
- 통신기기 :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통신단말기기의 경우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낮아 원화 환율 상승에 의한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철강** : 원화 환율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공급량 제한으로 큰 폭의 수출 증대가 어려움

○ (부정적 부문) 일반기계 부문은 원화 환율 상승으로 수입 단가가 상승,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 : 내수 중심 산업으로 일본 등으로부터의 핵심부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범용공작기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됨

< 원화 환율 상승의 산업별 영향 >

구 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영향 정도
조 선	- 신규 수주 유리	- 풍부한 수주 잔량으로 단기 효과 미미	△
자 동 차	- 수출 확대 - 일본차 수입 감소	-	○
섬 유	- 개도국에 대한 경쟁력 우위 확보	- 고급 섬유 수입 단가 상승	△
반 도 체	- 가격 경쟁 우위로 수출 경쟁력 제고	- 일본 기업들의 투자 강화 - 반도체 시장의 부진 지속으로 단기 효과 미미	△
통신기기	- 수출 시장 경합도가 낮아 긍정적 효과 미미	- 부품·소재 수입 단가 상승	△
컴 퓨 터	- 수출 확대	- 부품·소재 수입 단가 상승	○
가 전	- 디지털기기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 부품·소재 수입 단가 상승 - 일본 기업의 대규모 투자	○
석유화학	- 일부 범용제품 수출 경쟁력 제고	-	○
철 강	- 가격 경쟁력 제고 - 수입 대체 효과 기대	- 공급량 증가 제한	△
일반기계	-	- 내수 중심 - 부품·소재 수입 단가 상승	×

주 : ○는 긍정적, △는 중립적, ×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임.

III. 대응 전략

○ (경제 운영 기본 방향) 환율 상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의 전환을 전제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주력

- 환율 상승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의 전환 :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강화→생산 증가→투자 증가→고용 증가→소득 증가라는 선순환 효과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전만큼 크지 않음을 고려, 오히려 환율 상승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내수 활성화 대책 강구 : 원화 환율 급등에 따르는 물가 상승 등 내수 부진 요인이 커질 수 있는 점을 중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원화 환율 상승 기대 심리 해소) 원화 환율의 급등락을 방지하고 수출 증가와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정 환율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임

- 환율 안정 : 원화 환율 가치의 급락은 원화표시 수입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원화 환율 가치의 급락 방지를 위한 시장 개입 등 미세 조정 정책이 필요
 - 특히, 원/달러 환율의 급등 기대 심리를 해소하여 국내 달러 보유 주체들의 달러 공급을 유도

○ (신축적 금융 정책) 신축적 금융 정책을 통해 대외 금리 격차 확대 방지 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금리 인상은 자제 : 최근의 물가 상승은 원자재와 곡물 가격의 급등에 의한 것으로 공급 측면에서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상승 억제책은 오히려 국내 경기를 하강시킬 우려가 큼
 - 국내 경기 침체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선제적 금리 인하로 국내 경기 심리 위축을 미연에 방지

- (물가 안정) 가계 체감 물가 안정, 농산물 및 유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국내 물가 안정으로 소비 심리 위축을 방지해야 함
 - 가계 체감 물가 안정 :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 수입 소비재에 대한 한시적인 관세 인하 등 가계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
 - 농산물 및 유류 유통구조 개선 : 농산물 유통 체계의 단순화, 유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농산물 및 유류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국내 소비 진작과 기업 투자 증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내수 기반을 확대해야 함
 - 국내 소비 진작 : 개인 자산 유동화 촉진, 고용 연장 지원, 가계 부채 증가 억제 등을 통해 국내 소비 심리를 진작시켜야 할 것임
 - 투자 촉진 : 규제완화 신속 추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신성장 산업 분야 투자 유인책 마련을 통해 투자를 촉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건설 경기 진작 : SOC 투자 확대,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등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
-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방지) 신흥 유망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 및 해당 지역에서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 대일 무역역조 개선 등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 배가
 - 서비스 수지 적자 축소 : 국내 관광 서비스 향상과 홍보 증대로 외국인과 국내 소비자의 국내 관광 활성화 유도 등으로 서비스 수지 개선 대책 수립 추진
 -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 : 수출 지원 금융 확대,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지원 강화,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대일 무역역조 현상 개선 : 知日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및 육성·활용, 미래 신기술 개발 등 차별적인 對日 기술 및 산업 교류 증진, 적극적인 對日 시장 공략 지원,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작성 : 산업전략본부 신산업연구실	이부형 외 2명 (3669-4011, lbh@hri.co.kr)
□ 총괄 : 산업전략본부 본 부 장	유병규 (3669-4032, bkyoo@hri.co.kr)